

〈一樂亭記〉의 前代小說 變容과 作者意識*

李昇馥**

1. 序言

本考는 漢文小說 <一樂亭記>에 前代小說들이 변용된 양상과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작자의식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작자가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대소설에 크게 의지하여 이루어진 <一樂亭記>의 경우 전대소설과의 관련을 살피는 것이 작품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一樂亭記>에 대해서는 서문, 작자, 전대소설과의 관련, 그리고 작품의 구조와 작자의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서문에 대해서는 金東旭 教授가 ‘士大夫가 小說을 짓거나 읽거나 하는데 느끼는 自己撞着的인 辭明의 代表的發言’이라고 주목한¹⁾ 아래 18세기나 19세기에 ‘架空構虛之說로 도덕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이 소설’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자료,²⁾ 소설의 효용적 가치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주목한 자료³⁾라는 평가와 같이 조선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 연수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규장각 특별연구원.

1) 金東旭, <李朝小說의 作者와 讀者에 對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同刊行會, 1971, pp.43-4.

2)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81, p.73.

3) 李相澤·尹用植, 《古典小說論》,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6, p.79.

조 소설에 대한 효용론적 인식의 대표적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의 작자 문제에 있어서는 金東旭 교수 소장본의 서문 말미에 있는 ‘己巳冬陽復之月 晚窓翁識’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작자를 추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晚窓’라는 호를 사용하였던 李頤淳(1754-1832), 金裕壽(1695-1761)가 그 작자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검토되었고,⁴⁾ 金鎮龜(1651-1704)도 거론된 바 있는데⁵⁾ 이 가운데 李頤淳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⁶⁾ <一樂亭記>와 전대소설의 관련은 작자가 서문에서 <南征記>와 <倡善感義錄>을 언급하면서 다른 소설들을 본떠 창작하였음을 직접 밝히고 있어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九雲夢>, <南征記>, <倡善感義錄>, <紅樓花傳>, 그리고 중국소설 <沈小霞相會出師表>와의 유사성이 검토되기도 하였다.⁷⁾ 작품의 구조와 작자의식에 대해서는 가정소설 일반의 구조와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성격이 논의되기도 하였고,⁸⁾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구조가 주목되기도 하였다.⁹⁾

이처럼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정종대 교수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一樂亭記>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 기존 논의의 성과가 작품의 성격과 의미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서문의 진술이 작품과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고, 선행 작품과의 비교 역시 단지 유사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대소설의 변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작자의식을 검토함으로써 서문의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한다.

현재까지 <一樂亭記>는 金東旭 교수 소장본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의 2종이 현전하고 있는데 둘 다 漢文本이다. 본고에서는 규장각본을 대상

4) 신동익, <<一樂亭記> 作者 小考>,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6. 6.

5) 鄭宗大, <<一樂亭記>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69·7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0. 7.

6) 李頤淳과 金裕壽를 함께 검토하면서 <一樂亭記>의 작자 문제를 처음 본격적으로 논한 신동익 교수는 李頤淳이 작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7) 申東益, <<一樂亭記>研究-先行 作品들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 8, 서울대 국문과, 1983.

鄭宗大 교수는 前揭論文에서 <운영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홍백화전>, <삼국지연의> 등과의 관련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8) 鄭宗大, 前揭論文.

9)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 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2.

으로 하였다. 규장각본은 상, 하 2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매면 10행 21-23자 정도로 필사되어 있다. 卷首에 序와 目錄이 제시되어 있고, 하권 말미에 “上之十年四月怡齋書”라는 필사기가 있다. <一樂亭記>와 비교하게 될 <倡善感義錄>과 <南征記> 또한 규장각 소장 漢文本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⁰⁾

2. 前代小說의 變容 樣相

(1) <倡善感義錄>의 變容 樣相

<一樂亭記>의 서두에는 徐夢祥, 權彩雲, 鄭彩仙, 章桂仙 등 주요 인물들이 천상에서 적강하게 된 연유가 제시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이들의 仙化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곧 이들은 천상에서 적강하여 인간계의 榮辱 어린 삶을 살고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원나라 至正 연간 進士 柳英은 越王城 아래에서 船遊하다가 仙人 文天祥을 만나 시를 酬唱하고, 헤어질 때 문천상이 준 환약을 먹고 천상 白玉樓로 올라간다. 유영은 그 곳에서 문천상이 董中書, 秦貴妃와 각각 수작·회룡한 일이 있었음을 薛秋娘이 上帝에게 고하고, 상제가 문천상과 두 선녀, 그리고 설추랑을 인간 세상에 적거토록 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는 적거의 영을 받은 문천상을 다시 만나 내세에 금일의 인연을 잊자는 말을 듣는다. 이후 명나라 嘉靖 연간에 문천상은 서몽상으로, 두 선녀는 권채운과 정채선으로, 설추랑은 위계선으로 환생하게 된다. 그리고 유영은 서몽상에게 병서와 부적을 전해주기도 한다. 작품 말미에서 서몽상은 부인, 자손들과 함께 가을 풍광을 완상하다가 인생무상을 느끼고, 꿈에 한 선관이 80년 烟火의 재미가 어떠냐고 문자 알았다고 하면서 두 부인과 같이 仙化한다.

이처럼 柳英이 서몽상과 두 부인의 전생 일을 목격하는 것은 <雲英傳>의 柳泳이 雲英과 金進土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리고 결말부의

10) <倡善感義錄>은 상, 하 2권 2책으로 매면 10행 20자로 필사되어 있다. <南征記>는 상, 하 2권 1책(78장)으로 매면 10행 22자로 필사되어 있으며 권수에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권말에 작품 속의 삽입시문이 별도로 뮤여 있어 金春澤의 漢譯本에 가까운 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仙化는 <九雲夢>의 양소유가 返本還元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는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두 액자에 이어지는 서몽상의 성장 과정과 결연은 <倡善感義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몽상은 閱老 徐弼과 부인 劉氏 사이의 만드자로 태어난다. 서각노는 40이 넘도록 아들이 없음을 탄식하던 중 부부가 천상 선관 문천상이 하강하여 품에 드는 태몽을 꾸고 몽상을 낳는다. 이러한 서두는 영웅소설의 공식적인 설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몽상이 다섯 살에 《효경》을 외고, 여덟 살에 《논어》, 《맹자》를 읽으며, 아홉 살에 《주역》을 궁구하는 총명함을 보이자 서각노는 몽상이 가문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는 서각노가 고금의 치란을 묻는 천자의 물음에 당시의 권신인 嚴嵩을 비판한 다음 엄승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려 한다. 이에 몽상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님께서도 이를 따라 천천히 蕩春門 밖으로 돌아가 구름을 갈고, 달을 뉘는 여가에 책을 읽고 거문고를 들으며 영재를 교육하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운 일입니다. 또한 한 번 어지럽고 한 번 다스려지는 것은 天理의 당연함이요 人事의 囧有함이나 우리 태조 황제 덕을 쌓음이 두터워 근본이 굳으니 今皇께서 크게 밝고 크게 계승하신 자질로 불행히 陽이 약하고 陰이 성한 운과, 일시 해와 달이 어지러지는 변고를 만나셨으나 또한 어찌 혁신하시어 우러를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만약 陰이 운이 다하여 陽이 모여서 나아가면 아버님의 연세가 칠십에 이르기 전에 다시 隨者를 부르는 조서가 급히 탕춘문 밖에 이를 줄 어찌 알겠습니까?……¹¹⁾

이러한 서몽상의 말을 듣고 沈吟하던 서각노는 “우리 가문은 비단 이에 따라 보전할 뿐 아니라 또한 이에 따라 창성하리라(吾家門戶 非但從此保矣亦可從此大矣.)”고 하며 사직·낙향한다. 하루는 서각노가 몽상이 즉석에서 지어 올린 早梅詩를 보고 몽상이 후일 장원하여 黑頭宰相이 되리고며 칭찬

11) 夫子亦從此 解緩歸臥於蕩春門外 耕雲釣月之暇 讀書聽琴教育英材 亦一樂事 且…亂一治 天理之常 人事之固 然我太祖皇帝 積德厚矣 樹木固矣 今皇帝以不顯丕承之資 不幸遭此陽消陰長之運 一時日月之食 亦豈無改新仰觀之休乎 若夫群陰盡剝 衆陽彙征 則夫子之年未及懸車矣 復安知招隱一詔 遽及於蕩春門外哉(23면).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면수는 영인본(金起東 編,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5, 亞細亞文化社, 1980)의 면수를 따랐음.

한다.

이와 같은 서몽상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 서각노가 가문의 유지와 번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들 몽상은 탁월한 재능뿐 아니라 부친에게 낙향을 권유하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식견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부친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자는 작품의 서두에서 가문의 유지·계승과 번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倡善感義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倡善感義錄>에서 주인공 花珍이 어려서부터 탁월한 재능을 보이자 그 부친 花郁은 자신의 連城璧(吾之連城璧也)이라며 아들을 칭찬한다.¹²⁾ 이후 어사 南標가 嚴崇의 농권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가게 되자 화옥이 이를 근심한다. 이 때 花珍이 “시에 무지개가 동쪽에 있으나 감히 가리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어사가 소인의 惡逆을 배척하였으나 그 몸이 면할 수 없었으니 정히 군자가 기미를 살펴 사직하고 떠날 때입니다.”¹³⁾라며 낙향을 권유한다. 이에 화옥이 대경하여 칭찬하고, 화옥의 누이 成夫人도 ‘花門之福星’이라고 칭찬한다. 이후 화옥은 큰 아들 花璿과 花珍, 그리고 성부인 아들 成儒이 지은 시를 보고는 “우리집을 망하게 할 자는 춘이요 흥하게 할 자는 진이라”¹⁴⁾고 하면서 춘을 대책하고 차후에는 일동일정을 아우 진에게 배우라 한다. 이는 이후 이를 이복형제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부친에게 사직과 낙향을 권유한다거나 시를 지어 재능과 성품을 입증하는 삽화는 <倡善感義錄>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삽화를 통해 가문에 대한 의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렇하다. 그런데 <一樂亭記>는 <倡善感義錄>과 달리 가문의 단절이라는 위기 상황을 하나 더 보태고 있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倡善感義錄>에서는 화춘과 화진의 이복 형제 갈등이 가문에 초래하는 문제가 작자의 관심사라면, <一樂亭記>에서는

12) 1926년 新舊書林版 국문 구활자본에는 “오문을 흥거할 즓은 츠이라”라고 하여 가문의식이 보다 강화된 표현으로 되어 있다.(<창선감의록>, 《活字本古典小說全集》 10, 亞細亞文化社, 1976, p.248.)

13) 詩不云乎 蟬蟬在東 莫之敢指 今南御使指逐小人之惡逆 而不能身免 正君子色斯擧矣之秋也(上卷 4면).

14) 亡吾家者璿也 與吾家者珍也(上卷 8면).

가문 단절의 위기를 해소한 서몽상이 가문을 어떻게 변성시키는가가 관심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유사성은 결연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루는 전상서 權銓이 서각노를 찾아와 서몽상의 재능을 확인하고는 서각노에게 청하여 정혼하고 指環을 신물로 받아간다. 몽상과 정혼한 권상서의 딸 權彩雲은 늦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권상서 부인 柳氏가 南岳山 旡蓮庵 니姑 慧遠에게 시주한 후 선녀가 하강하는 태몽을 꾸고 낳은 딸이다. 권상서는 딸의 재능이 타월하자 可合한 사윗감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서각노의 집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권상서가 세상을 떠나자 권채운을 머느리로 삼으려고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嚴崇은, 권상서의 아우 權鉉을 무고하여 하옥하고 그 종질 권급사를 통해 다시 청혼한다. 이에 채운이 거짓으로 승낙하여 숙부가 풀려나게 한 다음 男裝을 하고 피신한다. 권채운은 도중에서 湖園公主의 아들 鄭光玉을 만나 그 누이인 鄭彩仙과 혼인한 후 진실을 밝히고 같이 서몽상을 섬기기로 한다. 사실을 알게 된 공주는 권채운을 양녀로 삼는다. 서몽상과 모친 유씨는 정광옥을 통해 권채운과 정채선의 일을 알게 되고, 몽상은 과거에 장원한 후 천자의 배려로 大內에서 혼례를 치른다.

이러한 서몽상의 결연 과정 역시 <倡善感義錄>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화옥은 가을 경치를 완상하다가 전이부시랑 井讐을 만나는데 사윗감을 구하러 다니던 윤시랑은 화옥에게 청하여 화진과, 자기 딸 井玉花와 남여사 딸 南彩鳳을 함께 혼인시키기로 하고 신물로 받아간다. 따라서 사윗감을 구하러 다니는 장인의 청으로 정혼하고 두 부인과 동시에 혼인한다는 것 역시 <倡善感義錄>을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부인을 동시에 취하게 되는 경위는 두 작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 <一樂亭記>에서는 권채운이 혼사장애를 겪으면서 정채선을 서몽상의 또 다른 부인으로 천거하지만, <倡善感義錄>에서는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던 남채봉을 윤시랑이 자기 딸과 함께 정혼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채운이 같은 여자인 정채선과 혼인하고 그녀를 서몽상에게 천거하는 것은 사실 <倡善感義錄>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 삽화이다. 엄승의 양자 趙文華가 제독 陳衡秀의 딸 陳彩瓊을 머느리로 삼으려고 청혼했다 거절당하자 진제독을 무고하여 하옥한 다음 다시 청혼한다. 이에 진체경이 거짓으로 허락하여 부친이 滅

死定配되자 남장을 하고 피신한다. 채경은 도중에서 만난 白瓊에게 스스로를 윤옥화의 쌍태 남동생 尹汝玉이라 소개하고, 백경이 자기 누이와의 혼인 이야기를 하자 가친에게 청하라고 한다. 이미 백소저에 대한 이야기를 시비를 통해 들은 채경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 받던 윤여옥에게 백소저를 천거할 생각에서 일부러 백경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다. 곧 <倡善感義錄>에서는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에 관한 삽화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一樂亭記>에서는 주인공에 관한 삽화로 변용된 것이다.

그러나 <倡善感義錄>에서는 진채경이 자신의 처지 때문에 윤여옥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 것을 내내 고민하다가 마침내 윤여옥을 위하여 백소저를 천거하지만 <一樂亭記>의 권체운은 그렇지 않다. 권체운이 시비를 통해 정채선에 관한 말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물론, 그녀가 정채선과 혼인하는 이유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결국 동일한 삽화라 하더라도 <倡善感義錄>에서는 그것이 義를 존중하는 현숙한 여인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一樂亭記>에서는 그것이 주인공에 관한 삽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 역시 <倡善感義錄>을 일정 부분 모방하고 있다. <一樂亭記>에서 첨 위계선과 그 간부 趙平의 무고로 岳州로 귀양가게 된 서몽상은 도중에 문하가 되기를 원하는 洪義甫를 만난다. 배소에서 선유하던 몽상은 바람 때문에 표류하여 도착한 곳에서 柳英을 만나 병서와 부적을 전해 받는다. 이후 黵律이 大燕皇帝를 칭하고 침공하자 홍의보가 각노 徐階를 통해 서몽상을 강력하게 추천하자 천자는 서몽상을 대사마 대장군을 삼는다. 서몽상은 홍의보와 같이 출정하여 대승을 거두고 개선하려 할 때 다시 남해 도적 董鐵山이 침입하자 남정대원수가 되어 출정한다. 서몽상은 동철산을 마음으로부터 항복받기 위해 그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한다. 동철산은 자기가 보낸 자객 衛八兒가 서몽상에게 자진하여 굴복하자 마침내 항복한다. 서몽상은 개선하다가 慧遠尼姑에게 의탁하고 있던 권체운을 만나 함께 경사로 돌아와 晉國公에 봉해진다. 이후 다시 蜀主 李雄의 모반을 진압하고 은인 謝瑋의 누명을 벗긴다.

<倡善感義錄>에서 화진은, 화춘의 첨 趙女가 간부 范漢과 모계하여 화진

이 화춘의 모친인 沈氏를 살해하려 한 듯이 꾸미고, 화춘이 이를 관아에 고하자 成都로 귀양을 가게 된다. 화진은 도중에 義人 俞聖禱를 만나 범한의 독수에서 벗어난다. 배소에 도착한 화진은 남어사 부부와 상봉하고, 산천 구경을 하다가 殷眞人을 만나 太公六韜를 배우고, 太上老君의 伏妖符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 이 때 海賊 徐山海가 남방을 침범하자 유성희가 각노 徐階를 통해 화진을 천거하고, 천자는 화진을 廣南府從事로 삼아 배소에서 출정 토록 하였다. 화진은 부적으로 서산해의 요술을 제어하고, 이어 계교로 서산해를 안남국으로 나오도록 하여 크게 무찌른다. 화진은 서산해가 보낸 자객 李八兒를 굴복시키고, 서산해의 요술을 다시 제압하여 그를 사로잡아 항복받는다. 이 때 蜀賊 蔡伯貫이 모반하자 개선하던 화진은 천자의 명을 받아 다시 이를 진압하고, 남어사 부부와 남채봉을 만나 돌아와 晉國公에 봉해진다. 이후 화진은, 太監 馮保가 위권을 회통하면서 각노 夏春海에게 씌운 누명을 벗기고, 하춘해와 같이 金山賊 馬芳枝를 토벌한 다음 그 세자를 살려준다.

이와 같이 유배되어 있던 서몽상이 출정하여 대승을 거두고 개선하던 중 다시 출정하여 승리를 거두고, 이후 또 한번 출정하여 승리를 거둔다는 영웅적 활약상은 완전히 <倡善感義錄>을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출정에서 개선하다가 헤어졌던 부인을 만난다거나 마지막 출정과 관련하여 恩人の 누명을 벗겨준다는 점 역시 똑같다.¹⁵⁾ 작품내적으로 이러한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은 헤어졌던 부인과 상봉하고, 가문을 번성케 하는 계기의 구실을 한다. 또 작품외적으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러한 전쟁영웅적 활약에 대한 주인공 자신의 인식이다. 촉으로 출정하면서 심씨에게 올린 편지에서 화진은 자신이 倫紀를 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리어 罪를 벗어나고, 형이 홀로 재앙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이 공을 세워 사면을 받으면 사람들을 동원하고 등문고를 울려 반드시 형을 구해내겠다고 하였다.¹⁶⁾ 곧

15) 전술적인 면에서는 <일락정기>가 <창선감의록>보다 <삼국지연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16) 罪子珍 泣血頓首再拜 于母夫人閣下 罪子賦性暗弱 處心無良 不念母親鞠育之恩
終昧兄長友于之情 怨義戕德 傷倫犯紀 自顧平生 死有餘罪 岂圖蒼穹無聞 鬼神無

화진은 자신의 영웅적 활약을 형을 구하고 서로 화합함으로써 가문의 안정을 이루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一樂亭記>의 서몽상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서몽상의 영웅적 활약은 단지 皇命에 의한 의무일 뿐이고 자신은 이러한 자신의 활약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倡善感義錄>과 <一樂亭記>의 작품내적 상황이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一樂亭記>는 주인공의 전쟁영웅적 활약이 지니고 있던 가문적 차원의 의미를 捨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인공의 재능, 결연, 立功의 세 측면에서 <一樂亭記>가 <倡善感義錄>을 모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一樂亭記>는 <倡善感義錄>과 같이 가문의 유지와 번영에 대한 문제를 주인공의 출생, 재능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지만 이후 결연이나 입공 부분에서는 그러한 문제 의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南征記>의 變容 樣相

<南征記>는 주지하다시피 첨 雜彩鸞으로 인해 한 집안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一樂亭記> 역시 첨 韋桂仙에 의해 집안의 안정이 파괴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과정이 <南征記>와 상당히 유사하다.

권채운, 정채선과 정흔한 서몽상은 과거길에 武昌에 도착하여 한 누각에서 통소를 불자 위계선이 거문고로 화답하고 찾아와 자기를 소개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知子反脫禍 兄獨罹禍 天不可恃 理不可信也 罪子聞此報 心骨震碎 立欲勿頤 自
裁於象魏之下 以明兄丈窮天之冤 而顧以身繫軍籍 不得自由 懷菴長慟 恨無羽翼
而已 乃者慈德感天 先靈冥隲 猥以不肖違有征鉞 自量才淺 立知僨事 而乃敢奮然
領命 先死赴難者 乃一僥倖 得遂寸功 則朝廷必赦罪譴 放還故里 伊時 相率百口
擊鼓叫闔 鳴此至冤 是所願也 慈恩所及 果蒙天幸 不至於喪軍辱先 此豈罪子之綿
功薄才所能致乎哉 誠以慈福無量 兄丈酷冤極痛 感動神明也 班軍將還之際 此心
忙急 如懷湯握火 行到剛州 又奉西封之命 悄然失圖 中腸崩斷 而皇旨截嚴 不可
以私辭也 行當大速了事 疾驅東歸 而第伏念慈望日深 兄危日滋 撫情酸神 此懷何
達 臨紙抑塞 筆舌亦哽 萬望慈體 益加康寧(下卷 89-91면).

집안이 영락하여 중매가 쉽지 않음을 스스로 분별하였는데 장원교 위에 천 선이 강림하여 꽃이 흐드러지고 벼들가지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마음을 지탱하기 어려워 감히 일시의 혐의를 엊었으니 원하건대 백년의 언약을 의탁하고자 합니다.……엎드려 바라건대 상공이 더럽다 하지 않고 건즐 받들기를 허락하시면 첨의 부모가 반드시 결초보은 할 것입니다.¹⁷⁾

이에 서몽상은 사양하다가 節을 지켜 기다리면 모친에게 고하여 좋은 기약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한다. 권, 정 두 부인과 혼인한 후 서몽상이 이 사실을 모친 유부인에게 고하자 유씨는 신의를 일컬으며 두 정실 부인의 의향을 물어 허락한다. 그러나 위계선을 본 유씨가 서몽상을 대하여 그녀가 덕이 없음을 근심하자 몽상은 비로소 위계선의 인품을 깨닫고 이후 화합하는 깊은 뜻을 품지 않게 된다.

위계선과 <南征記>의 喬彩鸞은 둘다 몰락한 上族의 후예라는 점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위계선은 애욕을 추구하여 스스로 서몽상을 따르지만 교채란은 “문호가 쇠미하여 寒土의 아내가 될 바에는 차라리 재상의 첨이 되겠다.”¹⁸⁾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부귀에 대한 욕망을 지닌 인물로 중매의 절차를 거쳐 婚入한다. 그리고 교채란은 자신이 아들을 얻기 위한 유씨가의 필요에 의해 혼입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정실 謝貞玉을 잘 섬기고 남편 劉延壽의 뜻을 잘 맞춰 사랑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서두의 嫁娶 과정을 통해 <一樂亭記>는 <南征記>와 달리 첨의 부정적인 측면을 애욕 추구로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첩 과정에 이어지는, 정실에 대한 첨의 모해는 두 작품이 상당히 유사하다.

<一樂亭記>에서 권채운은 정채선과 玩月하다가 위계선의 彈琴聲을 듣고 위계선을 불러 경계한다. 이에 정실과 양립하지 않겠다고 맹서한 위계선은 시비 蘭香이 천거한 趙平을 만난다. 그녀는, 조평이 서몽상을 먼저 제거한 뒤에 두 정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자 웃으며 조평과 동침한다. 조평은 엄승을 만나 서몽상이 不孝, 不仁, 不義한 사람이라 무고하고, 엄승은 이를 천자에게 상주하여 결국 서몽상을 악주로 귀양가게 한다. 이어 권채운의 필적과 물건을

17) 自分門戶零替 媒妁未易 俄見壯元橋上 天命降臨 蕩花飄絮 此心難持 敢忘一時之
嫌 願托百年之契 ……相公勿以卑鄙 許奉巾櫛 則妾之父母必恩結草之報也(70면).

18) 門戶衰矣 與機爲寒土妻 無寧作宰相妾(19면).

얼어야 한다는 조평의 말에 따라 위계선은 권채운의 필적을 내어주고 권씨의 시비 丁香을 매수하여 옥지환을 훔쳐낸다. 그리고 조평의 말에 따라 滅口를 위해 정향을 독살한다. 조평은 친구 胡英에게 권채운과 동락하라며 유인한 다음 문졸로 하여금 호영을 죽인다. 호영의 錦囊에서 권씨의 옥지환과, 권씨와 호영이 정을 통하며 유부인을 죽이려 모의한 편지가 발견되자 권채운은 죄인으로 자처한다. 조평은 권채운의 일을 엄승에게 전하고, 엄승은 다시 천자에게 상주하여 권채운을 하우하게 한다. 그런데 이날 밤 관음이 現身하여 권채운을 데려다 여승 慧遠에게 의탁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南征記>에서 교채란이 사정옥을 모해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교채란은 女胎를 男胎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 아들 掌珠를 낳은 후 사정옥이 자신의 彈琴에 대해 경계하자 남편에게 사정옥을 무고한다. 그러다가 사정옥이 아들 獬兒를 낳자 모해를 본격화한다. 교채란은 시비 臘梅를 통해 董青과 結交하여 사정옥이 자신과 장주를 저주하는 듯이 꾸민다. 또 교채란은 동청과 사통하면서 그의 계교에 따라 사정옥의 시비 雪梅를 매수하여 사정옥의 옥지환을 훔쳐내 동청의 친구 冷振에게 주어 사정옥이 냉진과 사통하고 있는 듯이 꾸밈으로써 유연수가 사정옥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이어 동청이 납매를 시켜 장주를 죽이자 교채란은 그것이 사씨의 짓인 것처럼 무고하여 결국 사씨를 축출하고 정실의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한다. 사씨는 우여곡절 끝에 관음보살의 夢中 指示를 받은 여승 妙喜의 구원으로 水月庵에 머물게 된다. 이어 교채란과 동청은 유연수를 엄승에게 무고하여 유연수가 귀양 가도록 한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실 출거와 남편 귀양의 순서가 서로 다를 뿐 침의 모해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거와 귀양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침의 악행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계선은 본격적으로 정실을 모해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탄한다.

인생 백년에 환락이 얼마나겠는가? 하물며 여자가 남을 쫓았다가 색이 시들고 사랑이 풀어지면 다시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내가 남의 회침이 되어 예법있는 가문에 속박되고 적실과 침의 직분에 얹매어 잠자리도 감히 남의 저녁을 당해내지 못하며, 몸가짐도 남의 절제 받음을 면치 못하는구나!¹⁹⁾

여기에서 정실에 대한 모해의 동기가 애욕과 환락의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처첩 과정에서 드러났듯 위계선이 서몽상을 따른 것은 애욕과 환락을 위해서였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정실을 모해하게 된 것이다. 위계선이 남편에게 정실을 포함하는 참소가 효과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조평을 만나 그의 계교대로 남편부터 제거하는 데 동의하고 동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녀의 욕망 때문이다. 곧 위계선의 입장에서는 환락에 대한 욕망이 충족될 수만 있으면 서몽상이건 조평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편을 귀양보낸 다음 권채운을 축출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弹轡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한 보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채란이 정실을 모해하는 것은 단순히 환락이나 애욕의 충족 때문이 아니다. 교채란은 정실이 놓지 못한 아들을 놓아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였으나 정실이 아들을 놓자 자신의 이러한 지위가 모두 상실될 위기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실에 대한 모해를 본격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정옥을 출거케 하고 자신이 정실의 자리에 올랐던 것인데 모해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동청과의 사통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애욕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이를 남편이 눈치챌까 두려워 귀양보냈던 것이다. <南征記>는 이처럼 처첩갈등이 지나고 있는 嫡妾, 嫡庶의 구분과 같은 신분갈등의 문제를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一樂亭記>는 처첩갈등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것을 단지 애욕을 추구하는 惡人과 그것을 거부하는 善人과의 대결로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다.

첩의 음모가 밝혀지고 그들이 징치되는 과정 역시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서몽상이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위계선과 조평, 그리고 시비 난향은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주한다. 그런데 조평이 난향과 사통하고 위계선이 이를 질투하여 난향에게 가혹한 짓을 마음대로 하자 난향이 전일을 후회하게 된다. 이 때 마침 이 지역을 순무하던, 권채운의 동생 權澈이 우연히 난향을 만나 이들을 모두 하옥하고, 개선하던 서몽상에게 이 사

19) 人生百年 歡樂幾時 況女子從人 色衰愛弛 則夫復何待 吾爲人嫡妾 束縛於禮法之門 踏躋於嫡妾之分 抱禡不敢當人之夕 持身不免受人之制(88-9면).

실을 알린다. 이후 서몽상의 집에서 3인을 심문한 후 천자의 허락을 얻어 위계선과 조평은 처형하고, 난향은 자결함으로써 집안의 안정이 회복된다.

<南征記>의 경우는 과정이 좀더 복잡하다. 정실을 축출하고 남편을 귀양보낸 교채란은 엄승의 덕으로 陳留縣令이 된 동청을 따라가면서 설매를 시켜 獄兒를 죽이라고 하고, 다시 桂林太守가 된 동청을 따라가다가는 해배되어 고향으로 가는 유연수를 보고 죽이려 한다. 유연수에게 모든 사실을 밝힌 설매는 결국 자살하고, 동청의 무리에게 쫓기던 유연수는 사정옥과 묘희의 구원을 받는다. 교채란은 동청과 통정한 남매를 죽이고 자신은 냉진과 사통하는데 엄승이 몰락하자 냉진은 登聞鼓를 울려 동청이 처형되도록 하고 관비가 된 교채란을 속량하여 함께 산동으로 간다. 그러나 도중에 재물을 모두 도둑맞고 냉진이 파락호 행세를 하다 죽자 교채란은 창기가 된다. 고향에 있던 유연수는 일부시랑이 되어 경사로 올라가다가 누이를 찾는, 사정옥의 동생 謝景顏을 만나 사정옥의 소식을 전한다. 江西布政使가 된 유연수는 사정옥을 다시 맞이하고, 예부상서가 되어 경사로 올라가는 길에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교채란을 첨으로 삼는다고 속여 데리고 가 처형한다.

첨을 비롯한 악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지난 음모가 侍婢에 의해 밝혀지고, 또 누이를 찾으려는 남동생과, 누이를 이미 만난 남주인공이 서로 만나 소식을 전하며, 경사로 악첨을 데려와 처형한다는 유사성을 볼 때 악첨의 징치 부분 역시 <一樂亭記>가 <南征記>를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南征記>에서는 악첨의 악행과 몰락 과정이 상당히 점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채란이 남매를 죽이고 냉진과 사통하고, 결국에는 창기로까지 전락하는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一樂亭記>의 위계선은 이러한 몰락의 과정을 겪지 않고 다만 난향에게 가혹하게 한 것이 빌미가 되어 불잡혀 처형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一樂亭記>는 첨의 징치 과정도 <南征記>를 일정하게 모방하고 있으나 惡者必滅의 서사적 전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첨, 모해, 징치의 과정을 통해 <一樂亭記>와 <南征記>의 처첨갈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一樂亭記>는 <南征記>를 일정하게 모방하고 있으나 처첨갈등이 내포한 여러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作者意識

<一樂亭記>에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두에 나음과 같은 序가 제시되어 있다.

세상에서 小說이라고 일컫는 것은 말이 모두 더럽고 속되며, 사건 또한 황당하고 허망하여 다 기이한 이야기, 이치에 맞지 않는 희롱하는 이야기로 귀착되고 말지만 그 가운데 이른바 <남정기>, <창선감의록> 등 수편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우쳐 문득 감발케 하는 깊은 뜻이 있다. 내가 이에 子雲의 偕竊을 생각지 않고 西施 이웃의 쟁그림을 본받아 이 작품을 구성하였으니 능히 안목 있는 사람들의 한 번 웃는 자료가 되지는 않겠는가? 대개 一樂亭은 蘇州侯가 교육하던 곳이고, 晉公의 사업 또한 일락정에서 비롯되었으니 제목은 이러한 뜻을 취한 것이다. 아아 이 책을 지은 것이 비록 허공에 시령을 매고 빙 것을 얹은 말(架空構虛之說)에서 나왔지만 문득 또한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린다(福善禍淫)는 깊은 뜻이 있은 즉 이것이 어찌 나를 죄주거나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원컨대 남들이 보지 않게 하고 가정간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한문이나 국문으로 읽게 한다면 가르치는 도리에 보탬이 있다고 할 것이다.²⁰⁾

위 서문의 내용은 소설관의 표명과 <一樂亭記>에 대한 설명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곧 작자는 小說이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南征記>나 <倡善感義錄>과 같이 ‘福善禍淫’의 깊은 이치를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작품은 사람을 감발시키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여 소설에 대한 궁정적 인식을 피력하고 있으며, 자신이 전대소설을 모방하여 사람을 감발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一樂亭記>를 창작하였다고 하여 창작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작자가 인식하고 있는 福善禍淫의 이치라는 것의 내포적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단지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재앙을 받도록 하는 서사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20) 世之謂小說者 語皆鄙俚 事亦荒誕 盡歸於奇談詭譎 而其中所謂南征感義錄數篇 令人說去 便有感發底意矣 余於是乎 不思子雲之僭竊 效西隣之頤 構成是篇 能不爲具眼者一哂之資耶 盖一樂亭蘇州侯教育之所 而晉公事業亦自一樂亭者 竊有取義焉 惕是書之作 雖出於架空構虛之說 便亦有福善禍淫底理 則此豈非罪我知我者乎 但願勿令人見之 使家庭間婦孺輩眞諺讀之 則庶幾有補於教誨之一道云爾(3면).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향가치의 소산인지 하는 것이 명확히 구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설옹호론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관심은 <一樂亭記>의 작자만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倡善感義錄>의 작자 역시 서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무릇 인생은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충효로써 근본을 삼을 것이니 尤愛하고 慈敬하는 마음과 善을 즐기고 德을 행하는 뜻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저 子孫昌大와 富貴榮樂은 모두 그 복의 유래가 먼 것이니 기틀을 세움이 두터우면 비록 위태하더라도 반드시 편안해지고, 기틀을 세움이 두텁지 아니하면 비록 편안하더라도 반드시 위태로워지니 이 이치는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²¹⁾

<倡善感義錄>의 작자인 趙聖期는 사랑하고 자애하며 공경하는 일상적 윤리와, 선을 즐기고 덕을 행하는 개인적 수양의 근본이 충효라고 하면서 이를 제대로 행하면 위태한 곳에 있더라도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곳에 있더라도 위태로워진다고 하여 그것이 일시도 떠날 수 없는 도덕적 당위임을 역설하면서 子孫昌대나 富貴榮樂과 같은 복이 충효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晚窯翁은 福善禍淫을 말했을 뿐이지만 趙聖期는 福善禍淫의 근본을 忠孝라는 구체적인 도덕적 당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南征記>의 경우 다른 두 작품과 같은 서문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씨가에서 출거된 사정옥이 고난이 가중되자 “옛사람의 이른바 福善禍淫이 어찌 빈 말이 아닌가”²²⁾라며 자결을 결심하는 데에서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어 주목된다.

결국 세 작품의 작자 모두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一樂亭記>는 주인공의 재능, 결연, 입공에서 <倡善感義錄>을 변용하고 있는데 결연과 입공의 과정에

21) 大凡人生 勿論男女貴賤 必以忠孝爲本 至於尤愛慈敬之心 樂善行德之意 一皆從斯而出也 夫子孫昌大 富貴榮樂者 皆福之所由來者遠矣 故其立基也厚 則雖危必安 立基也不厚 則雖安必危 此理之自然也(上卷 1면).

22) 古人所謂福善禍淫 岂非虛語(78면).

서는 출생과 재능의 부분에서 제기된 가문에 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南征記>를 변용하면서는 처첩갈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제 먼저 <倡善感義錄>과 <南征記>의 작품적 함의를 살펴 이들 작품에서 거론하고 있는 ‘충효’라는 도덕적 당위와 ‘福善禍淫’의 내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一樂亭記>에 형상화된 ‘福善禍淫’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一樂亭記>와 <南征記>의 핵심 갈등은 처첩갈등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갈등이 망라된 <倡善感義錄>에서도 화춘의 첨 조녀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화춘의 첨 조녀는 范漢과 상의하여 정실 임씨가 시모 심씨를 저주한 것처럼 꾸미자 화춘은 임씨를 내치고 조녀로 정실을 삼으려 한다. 이에 화진이 심씨에게 이마를 땅에 부딪쳐 유혈이 낭자하도록 울면서 간하고, 범한을 꾸짖어 내치며, 화춘이 종족을 모아 조녀를 정실로 삼으려 할 때에도 극력 나서서 반대한다. 이후 정실이 된 조녀는 범한과 사통하면서 화진을 무고하여 귀양보내고 화진의 부인 남씨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범한의 친구 張平은 화진의 부인 윤씨를 엄승의 아들 세번에게 바치려 한다. 이에 따라 가문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인물들은 모두 화부를 떠나고, 화부에는 우매하고 무능한 심씨와 화춘 모자만이 남는다. 이는 결국 화씨 가문의 위기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인 춘이 우둔하고 방탕하여 부랑자를 집안에 끌어들이고, 첨을 쳐로 삼음으로써 가문을 스스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러한 가문의 위기 상황은 심씨와 화춘이 도덕적 당위의 權化인 화진의 정성에 의해 개파하고, 화진이 서산해의 침입을 물리쳐 공을 세워 옥에 갇힌 춘의 사면을 받아냄으로써 극복된다.

이처럼 <倡善感義錄>은 무능한 가장의 등장에 따른 가문의 위기 상황과, 효와 우애라는 도덕 규범에 충실햄, 가장의 아우에 의해 그러한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곧 우둔하고 무능한 가장에 의해 가문에 위기가 초래된다고 해서 장자나 가장을 다른 인물로 대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체계가 확고히 자리잡기 시작하는 17세기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인데 <倡善感義錄>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다.23) 따라서 조성기가 언급한 충효는 일차적으로 가문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 곧 가문의식과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南征記>의 처첩갈등은 단순히 현숙한 정실과 개인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악한 첨의 대립이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정옥과 유연수의 혼인은 단순히 남녀주인공의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시부 유회가 현숙한 며느리를 맞기 위해 고심하고, 사정옥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현숙한 며느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사정옥이 한 남편의 현숙한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질서의 핵심에 위치해 가문을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정옥은 後嗣를 위해 남편에게 得妾을 권유 했고, 첨에게 미혹된 남편에 의해 출거되어서도 시부모의 묘하에 가서 지냈던 것이다. 이는 사정옥이 가부장적 질서에 철저한 인물이었고 그러한 자신의 이념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정옥은 고난이 가중되자 福善禍淫이라는 고인의 가르침을 회의하면서 자결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二妃에게서 자신의 고난이, 하늘이 가장인 유연수로 하여금 실수와 개과를 거쳐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 한 일시적 곤액이고, 유연수가 개과하여 하늘의 경계가 이루어지면 그 때 사씨로 하여금 가문의 회복을 다시 돋게 할 것이라는²⁴⁾ 설명을 듣자 마음을 돌이킨다. 이에 따라 사정옥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는 남편이 위기에 빠지자 그 목숨을 구하며, 다시 가문의 종사를 위해 남편에게 임씨를 첨으로 친거함으로써 임씨가 기르고 있던 아들 인아를 되찾아 가문의 회복과 계승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작자는 고난을 무릅쓰고 가부장적 질서와 부덕을 지켜나가는 정실에 의해 남편과 첨의 의해 파괴된 가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정옥이 굳게 지킨 福善禍淫이라는 고인의 가르침은 가부장적 질서에 충실하여

23)拙稿, <<창선감의록>의 주제와 소설사적 위상>(李相翊 外, 《古典文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集文堂, 1994), pp.619-620.

24)劉氏本積善之家 誠意伯遭澤未斬 少師忠貞之士 翰林亦君子人 而不幸早顯 未及周知天下之事理 天將降一時灾禍 以大警之 故夫人與受其困 而欲待其改過 更使夫人佐焉 此天所以佑劉氏者非偶然 而夫人何獨如是褊急也(85면).

가문의 계승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倡善感義錄>과 <南征記>는 모두 가문내 가부장적 질서의 파괴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忠孝라든지 福善禍淫이라는 용어로 표현된 도덕적 당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樂亭記>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福善禍淫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자. 위계선을 첨으로 맞이한 서몽상은 위계선의 不德을 근심하는 모친의 말 한 마디에 위계선의 인물됨을 깨닫아 미혹되지 않는다. 유연수나 화춘과 달리 그의 일시적 미혹은 가문의 위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계선은 정실과의 신분갈등 때문이 아니라 애욕과 환락을 위해 남편을 귀양보내고 정실을 축출한다. 위계선의 婚人이 결과적으로 가문에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문 파괴의 문제를 작품내적 논리에 따라 제시한 결과가 아니라 그녀를 무조건적인 악인으로 형상화하려는 작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실들도 사정옥처럼 가부장적 질서에 철저한 인물로 그려져 있지 않다. 권채운이 부친의 정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주하는 것은 그녀가 烈이라는 도덕적 관념에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 이 과정에서 작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婦德이 아니라 그녀의 뛰어난 재질이다. 어릴 때부터 재질이 뛰어나 부친이 가합한 신랑감을 구하려 전국을 돌아다닐 정도였고, 기지를 발휘해 숙부를 위기에서 구해내었고,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선 것도 10세에 지은 매화시의 詩識 때문이라는 것은 그녀가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가 정채선과 혼인하는 것은 그녀의 아량과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라는 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채운의 재능과 아량이 전혀 가문을 위해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사정옥은 미혹된 가장에 의해 출거됨으로써 그녀의 출거가 가문의 안정과 질서의 파괴라는 의미를 갖지만 권채운의 출거는 가장인 서몽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가부장적 질서 자체의 파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정실의 이념이 불분명하고, 정실의 고난이 가부장적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남편의 미혹과 개과 역시 가문적 차원이거나 부부의 차원이거나 간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단지 악첨의 혼입을 위한 일

시적인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또 첨의 극악성이 부각되어 있으나 정실을 모해하기 위해 남편을 먼저 제거하는 첨의 행위는 처첩갈등 자체를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가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대소설을 표면적으로만 모방하면서 처첩갈등을 단순히 선악의 대립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一樂亭記>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福善禍淫의 깊은 이치’는 <倡善感義錄>이나 <南征記>와 같이 ‘가문’이라는 기준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福善禍淫’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一樂亭記>는 이러한 복선화음의 이치를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 천상과 지상을 구분하고 지상에서의 삶은 천상에서 이미 예정된 것으로 그리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곧 주인공들은 천상 세계에서 적강한 인물들이며, 그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倡善感義錄>이나 <南征記>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一樂亭記>가 지상에서의 삶이 천상에 예정되어 있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倡善感義錄>과 <南征記>는 그렇지 않다. <倡善感義錄>과 <南征記>는 초월계를 개입시키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대로 작품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인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倡善感義錄>에서 남여사 부인 모친 한씨는 清遠尼姑가 觀音畫像을 그려줄 여인을 찾자 채봉으로 하여금 화상을 그리도록 한다. 이후 남여사가 한씨, 채봉과 같이 귀양지로 가는 도중 엄승이 보낸 도적들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때 남여사 부부는 郭仙公이라는 은자의 구원을 받고, 부모와 헤어진 채봉은 선녀와 麻衣老嫗의 도움으로 진제독 집에 의탁하게 된다. 또 후일 남채봉이 조녀에 의해 독살되자 청원은 현몽한 관음의 지시에 따라 채봉을 구한다. 이처럼 남채봉이 관음화상을 그린 것이 인연이 되어 위기를 벗어나고 목숨까지 건지는 초월적 세계의 개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진은 이러한 초월 세계의 존재와 그 개입을 거부한다. 배소에서 괴선공과 장인 남여사를 만난 화진은 괴선공이 화진의 前世師友 殷眞人 운운하자 그 말을 허탄하게 여기며, 이어 직접 은진인을 만났을 때 은진인이 전생의 일을 기억해낼 수 있는 단약을 주자 “소생은 이미 인간 세계의 사람이나 망령되어 천상의 일을 알면

몸에 이로움이 없고 다만 심회가 어지러울 뿐입니다. 이 약을 한 번 먹어 신선이 된다 하더라도 소생에게는 편모와 외로운 형이 있으니 어이 차마 이들을 버리고 혼자 가겠습니까?”²⁵⁾라며 거절한다. 또 나중에 남어사가 과선공에 대해 ‘그의 신기함이 매번 이러하니 세상에 이와 같은 허령한 이치가 있는가?’²⁶⁾라고 묻자 화진은 “자고로 방외의 무리에게 왕왕 괴이한 이야기가 있으나 성인이 신괴를 말하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²⁷⁾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倡善感義錄>에서는 초월적 세계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도덕적 당위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南征記>의 경우에서도 초월적 세계가 작중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 남방으로 시고모인 杜夫人을 찾아가면서 온갖 고생을 하던 사씨가 관음보살의 現夢指示를 받은 묘희에게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귀양가 있던 유연수가 득병하였을 때 관음이 현동하여 약물을 놓은 곳에서 샘이 솟아 그 물을 마시고 병이 낫기도 한다. 이처럼 관음보살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개입의 근거가 작품 서두에 마련되어 있다. 유연수의 부친 劉熙는 그 누이 杜夫人的 말에 따라 사정옥이 현숙한 며느리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승 묘희로 하여금 觀音畫像贊을 받아오게 하는 것이다. 처음 사정옥은 시문을 짓는 것은 여인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양하기도 하고, 자신이 배운 것은 儒家書이니 억지로 짓더라도 묘희의 눈에 차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도 하지만 묘희가 계속 권유하자 마지못해 다음과 같은 찬을 짓는다.

나는 들훈대 人師는 옛성녀라. 그 덕을 상상컨대 周나라 妖姒와 같으리라.
關雎와 葛覃이 부인의 일이니 외로이 空山에 있음이 어이 그 본뜻이리오? 稷契이 세상을 도운 것과 夷齊가 굶어 죽은 것은 그 도가 같지 않음이 아니라 만난 바가 다름이라. 遺像을 보니 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으니 그 대개를 알겠도다. 옛 節婦가 머리카락을 버리고 몸을 상하여 무리를 떠나 세상과 절연하여 그 의로움을 취하는도다. 서쪽 글이 殘缺하고 풍속이 기이함을 좋아하여

25) 小生旣作人間之人 妄知天上之事 則無益於身 而徒亂心懷耳 藉令此藥一飯成仙
小生有偏母孤兄 何忍捨之而獨往乎(下卷 23면).

26) 人抵此翁神機每如此矣 賢增傳通古書 世間亦有此等虛靈之理耶(下卷 99면).

27) 自古方外之流往 有詭怪之談 而終非聖人不言神怪之意也(下卷 99면).

신기함을 傅會하니 倫紀에 해가 있도다. 아아 대사는 어찌 여기에 있는가? 긴 대 수풀에 하늘은 차고 바다의 파도가 만리에 가득하도다. 어찌 스스로 위로하리오? 꽃다운 이름이 백대에 전하리라. 내 찬문을 지음에 흐르는 눈물이 땅을 적시도다.²⁸⁾

사정옥은 관음을 妊姒의 덕을 갖추고 세상과 절연하여 義를 지키는 節婦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정옥의 앞일을 암시하는 것인 동시에 관음보살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유교적 이념의 연장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관음보살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교적 세계관 때문이 아니라 유교 이념의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와 같이 <倡善感義錄>과 <南征記>에는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고는 있는 하지만 작자가 그것을 궁적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입장에서 그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하거나 그러한 존재의 개입 근거를 유교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一樂亭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월적 세계와 존재의 개입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유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 관음보살의 개입은 <一樂亭記>에서도 볼 수 있는데 권채운의 모친 유씨는 百子堂에 관음화상을 걸고 기도하다가 시주를 청하는 혜원에게 화상에 찬시를 써서 준다. 이에 따라 권채운이 옥에 갇혔을 때 관음이 직접 현신하여 권채운을 데려다 혜원에게 의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씨가 지은 찬시는 사정옥이 지은 것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聖女는 어느 해에 海宮에서 나왔는가?
 西天의 감로수가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솟아나네
 굽디 굽게 玉같이 그림 속에 서있도다.
 인간에 널리 구제하는 공을 아끼지 말으소서²⁹⁾

28) 吾聞大師 古之聖女 想像其德 如周妊姒 關雎葛覃 夫人之事 孤在空山 豈其本志
 穢契輔世 夷齊餓死 非道不同 所遇之異 吾觀遺像 衣白抱子 因圖思人 吾知其槩
 古之節婦 裁髮毀體 離群絕世 惟取其義 西文殘缺 流俗好異 傳會新奇 有害倫紀
 喏惟大師 胡爲在此 脩竹天寒 海波萬里 何以自慰 芳名百祀 我作贊文 流淚濕地
 (8-9면).

29) 聖女何年出海宮 西天甘露南歸路 婷 玉立畫圖中 莫惜人間普濟功(37면).

여기에서 관음보살을 유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둘째 구가 후일 권채운이 남악 백련암에 의탁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구에는 단지 화상 속 관음의 모습에 대한 간략한 묘사, 관음에 대한 칭송과 기원이 담겨있을 뿐이다. 또 <倡善感義錄>의 화진과 달리 서몽상이 유영을 만났을 때 유영은 자기와 서몽상은 *夙世*의 인연이 있고 전할 것이 있다며 병서와 부적을 전하자 서몽상은 유영을 칭송하고 사례할 뿐이다.

이처럼 <樂亭記>는 <倡善感義錄>과 <南征記>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창작되었지만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초월적 세계나 존재의 개입에 대한 아무런 의문이나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倡善感義錄>과 <南征記>에 나타난 초월적 세계나 존재의 개입은 가부장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또 그러한 질서의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忠孝나 福善禍淫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작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개입시키면서도 유교적 입장에 서있는 인물의 말과 글을 통해 그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것 자체를 유교 이념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문의식이 성숙되던 17세기 당대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樂亭記>는 이러한 고민을 떨쳐버리고 초월적 세계의 개입을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善者受福이라는 규범의 가르침과는 달리 착한 주인공들이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규범과 삶의 괴리를 초경험적 논리를 빌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樂亭記> 서문에 제시되어 있는 '복선화음의 깊은 이치'라는 것이 도덕적 당위에 대한 심각한 이해와 고민이³¹⁾ 결여된 보편적이고 막연한 것인 이상 작품에 제시된 이원적 구조는 오히려 작자 당대에 유행하던 적강 모티프의 단순한 차용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30) 이원수, 전개논문, p.128.

31) <倡善感義錄>의 작자인 趙聖期는 人心과 道心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善惡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趙聖期의 사상과 <창선감의록>>(전농어문연구 7, 서울시립대 국문과, 1995. 2)에서 논한 바 있음.

처럼 <一樂亭記>가 전대소설을 모방하면서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작자 개인의 특수성과 창작 당대의 문학적 관습,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가문과 관련지어 도덕적 당위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시대적 분위기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結語

본고는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정작 작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던 <一樂亭記>를 대상으로 전대소설의 변용 양상과 작자의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락정기>는 주인공의 재능, 결연, 입공은 <倡善感義錄>, 그리고 처첩갈등 부분은 <南征記>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一樂亭記>는 이러한 선행 작품들이 보여주는 가문과 도덕적 당위의 관련과 같은 문제의식을 대폭 약화하고, 선과 악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있어 서문에 제시된 ‘福善禍淫의 깊은 이치’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一樂亭記>라는 작품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7세기 <倡善感義錄>과 <南征記>에서 보여주었던 趙聖期와 金萬重의 고민이 18-19세기의 소설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보다 많은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본고의 논의를 심화하고, 소설 사적 시각에서 <일락정기>가 보인 변화의 원인을 구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